



국제로타리 3650지구, 2018 김장 나눔 봉사 실시

11월 3일 서울시청 광장, 로타리안과 가족, 로타랙트, 인터랙트 등 600여명 참가, 김장김치 30톤 함께 담그며 로타리 봉사의 의미 새겨

국제로타리 3650지구 '2018 김장 나눔 합동 봉사'가 지난 2018년 11월 3일(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시청 광장에서 로타리안 및 가족, 로타랙트, 인터랙트 회원 등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제5회 서울시 김장문화제의 일환으로 함께 하는 이번 2018 김장 나누기 봉사에는 우리 3650지구 로타리안들과 일반 서울 시민, 기타 기업 및 기관, 외국인 등 약 1천 2백여명이 참여하여 서울시가 준비한 김장 재료로 김장을 직접 담그고 포장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우리 지구 로타리안들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들이 담긴 김장 김치 30톤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서울시 봉사수혜단체들로 기부됐다.

2015년부터 4년째 서울시 김장 문화제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지구는 이번 봉사활동에 45개 클럽 로타리안 및 가족들과 신세대 봉사파트너 등





600여명이 참가하여, 연합 봉사의 의미와 우정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물푸레 리틀랙트 클럽(단장 경희수 인터랙트위원장)은 11월 2일 개막식에서 축하공연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김종 사무총장, 백성희 사회봉사위원장, 박윤희 사무부총장, 강무진 여성위원장을 비롯한 여성 위원회 위원들과 지구임원, 로타랙트 지구임원, 각 클럽 인터랙트 지도교사 등 50여명이 행사당일 오전부터 참가자 안내 및 행사 준비를 함께 하며 봉사를 펼쳤다. 아울러 우리 지구 각 클럽이 후원하는 12개 로타랙트 클럽 175명과 10개 인터랙트 클럽에서 170명의 신세대 봉사단원들이 참가하여 로타리안들과 어울려 김장을 함께 담그며 봉사정신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진행된 이번 제5회 김장문화제는 개막 첫날인 11월 2일(금)에 장세호 총재가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함께 김장 버무림 개막행사에 참여했으며, 이튿날인 11월 3일(토)에는 우리 3650지구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김장봉사를 펼치고 장세호 총재가 참가자 대표로 개회 인사말을 하는 등 로타리의 봉사활동을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는데 큰 몫을 했다. 특히 이번 제5회 김장문화제는 3일간 우리 3650지구 로타리안을 비롯한 여린 기관과 단체, 일반 시민, 외국인 등 3,452명이 90톤의 김장을 담가 9,000개의 김치 상자를 포장했으며,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푸드뱅크와 13곳의 서울시내 사회복지단체에 전달됐다. 🍵

